

친정엄마가 죄인인가?

김은남 / 시사저널 문화팀장

나는 애가 하나다. 그 애가 세 살이 다돼갈 무렵부터 내 마음 속에는 갈등 하나가 생겼다. 둘째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갈등이 그것이다.

“애가 혼자서 얼마나 외롭겠니?” “그래도 남는 것은 동기밖에 없다더라.” 친구들의 말에 귀가 솔깃하다가도 나는 이내 도리질을 치고 만다. 친정엄마가 생각나서이다. 출산 휴가 두 달이 끝나자마자 나는 시골에 있는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겼다. 평생 출퇴근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 보나’ 꿈에 부풀어 있던 친정엄마는 잘난 딸내미 때문에 코가 꺾어 버렸다. 그러기를 3년. 기른 정이 듬뿍 든 손주를 물고 빨고 하면서도 당신은 가끔 이렇게 혼잣말을 하시곤 한다. “어이구, 내 팔자야. 세상에 공짜는 없다니깐.”

말인즉, 당신 또한 시어머니에게 평생 아이를 맡기며 직장 생활을 했던 데 대한 업보를 뒤늦게 치르고 있다는 뜻이다. 그 낯두리를 들으며 깔깔 웃다 말고 나는 문득 분노가 치미는 것을 느낀다. 친정엄마가 우리를 기른 것이 삼십년 전 일이다. 삼십 년이면 강산이 변해도 세 번은 변하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다섯 번은 바뀌고, 한강에 다리가 놓여도 스무 개는 놓였을 세월이다. 그런데 그토록 세상이 바뀐 지금도 어찌해서 나는 엄마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야 하나?

핵심적인 이유는 너무도 단순하다. 삼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이를 믿고 맡길 데가 여전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일하는 여성들은 시어머니나 친정엄마에게 영겨 붙을 수밖에 없다. 재미있는 것은 많이 배우고 많이 버는 여성일수록 친정엄마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

이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30% 이상이 친정엄마 손을 빌려 아이를 키우고 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엄마들의 한(恨) 풀이’라는 표현을 썼다. 못 배우고 못 벌여 숨 죽이고 살았던 자신의 한스러운 삶을 답습시키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딸에게 고등교육을 시켰던 엄마들이 행여나 딸이 다시 자기 같은 신세로 전락할세라 희생을 무릎쓰고 손주의 양육을 떠맡고 있다는 것이다.

속사정이 그렇다면 이는 너무 비참하다. 유학차 독일로 떠났던 후배는 그곳에 간 직후 ‘애들 보육비로 온 식구가 먹고 사는’ 학생 부부가 적지 않다는 데 깜짝 놀랐다고 한다. 국가에서 자녀 양육비를 그만큼 후하게 지급하더라는 얘기이다. 이른바 선진국들은 이처럼 사회가 직접 나서 아이를 키운다. 모든 것을 시장 원리에 내맡긴다는 미국도 보육 비용 정부 부담률은 41%에 이른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아이 키우는 것은 무조건 사회가 아닌 개인 책임이다. 국가는 가족에게, 가족은 여성(엄마)에게, 여성은 또 다른 여성(친정엄마?시어머니)에게 차례로 책임을 떠맡기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양육 현실이다.

최근 매스컴은, 한국의 출산율이 서구보다 낮은 1.30명을 기록했으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나는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출산 파업’을 벌일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한다.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 엄마의 자아를 희생시켜야 하는 이런 비인간적인 사회에서라면 나는 아이를 더 이상 낳지 않을 것이다. **PEEK**